

김기문 “이번 임기 끝으로 중앙회장직 마무리할 것”

(중기중앙회장)

내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 임기
중소협동조합법 개정안 논란에
“임기 관련 현행 제도 유지 바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24일 오후 배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은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동안 일부 회원 및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않았으나 법 개정안 논의가 저의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

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드린다”면서 “차기 중앙회

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다시 4년 임기의 26대 회장을 거쳐 내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 임기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 4회에 걸쳐 16년 동안 회장을 하고 있는 김 회장이 차기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한국도요타, 국립암센터에 8000만원 기부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소아·청소년 및 취약계층 암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23일 국립암센터에 기부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장, 김형준 한국도요타자동차 이사,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이병진 한국도요타자동차 부사장 등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



“W.A.V.E’ 전략으로 100년 기업 도약”

(인재·혁신·가치·친환경)

HMM 창립 50주년 기념식

새로운 비전 ‘해운을 넘어’ 선포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창립 50주년(3월 25일)을 맞아 세계 최고의 종합 해운·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언했다.

HMM은 창립 5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HMM의 새로운 비전으로 해운을 넘어 더 큰 가치와 더 나은 미래를 움직인다는 뜻의 ‘Move Beyond Maritime’ (해운을 넘어)이 선포됐다. 또 인재(W), 혁신(A), 가치(V), 친환경(E)이라는 4가지 축의 ‘W.A.V.E’라는 구체적인 전략 방향도 제시됐다.

속련된 인재와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치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HMM은 설명했다.

최원혁 HMM 대표는 “50년의 역사를 동력으로 100년 영속기업을 향해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탭티어 선사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HMM은 1976년 유조선 3척으로 시작한 HMM은 1994년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취항했고, 1997년에는 변동성이 심한 해운업계에서 10



24일 HMM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HMM 50주년 기념식’에서 최원혁 대표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010년대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뒤에도 2020년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인 2만4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 호를 비롯해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며 재도약했다.

HMM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선사 최초로 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고 선박종합상황실을 개설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 경쟁력과 디지털 전환(DX)에 앞장서고 있다.

HMM은 이날 선포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보, 중소·중견기업 금융·성장 지원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과 ‘맞손’
기후테크 기업 발굴, 지역 균형성장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산업은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업은행과는 균형 성장을위해 지역 창업 활성화를 돕는다.

24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K-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중소·중견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유망 기후테크 기업 발굴 ▲기후대응보증·녹색기술산업보증 등의 우대보증 제공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산은은 ▲녹색특별상품을 통한 금리 우대 ▲투자 플랫폼 연계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 간 기후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탄

소중립 전환을 지원해 녹색금융 확산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기후테크 기업을 녹색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보는 또 중소기업은행과 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 고도화를 촉진해 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 출연금 145억원을 재원으로 29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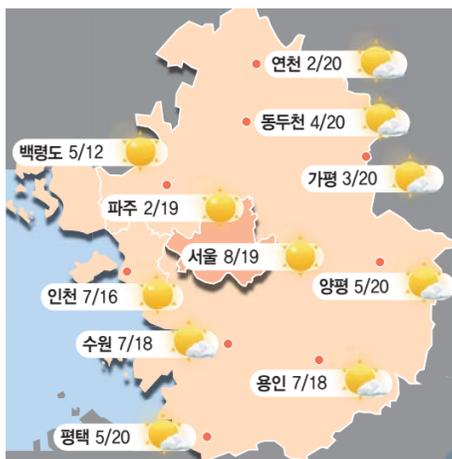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9 | 해질 / 18:48

3월 25일 (수)
음력: 2월 7일

수도권 날씨
8 ~ 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무신사, 패션·리테일 분야 장애인고용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무신사리테일 서비스는 24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분석해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

용서비스를 제공해 무신사리테일 서비스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패션/리테일 분야에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를 만들것”이라며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성 무신사리테일서비스 대표이사는 “패션 및 리테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직업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장현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하헌재

부음

▲ 김재현씨 별세, 김규식(프로축구 강원FC 부대표)씨 부친상 = 23일, 강릉 아나병원 장례식장 특 1호, 발인 25일 오전 10시.

르노코리아-부산시, 전동화 설비 구축

르노코리아는 2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전기동력자동차 생산 시설 구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기아-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

기아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더 기아 PV5 W AV(이하 PV5 WAV)’를 활용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아



오투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오투기함태호재단이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오투기센터에서 ‘제30회 오투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투기함태호재단 함영준 이사장(둘째줄 가운데)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60명의 장학생들은 오투기함태호재단으로부터 2년간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오투기



한기대 ‘OASIS AMP 5기’ 입교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4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OASIS AMP) 5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및 건설 전문 기업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등 총 40개 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안전 분야 고위 관리자들이 1년간 총 24주 참여한다. /한기대